

서울대의대 安允玉교수팀 조사내용 분석

우리나라 암환자중 위암환자가 인구10만명당 57명(남자36.2명 여자21명)으로 가장 많다는

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피보험자와 피보험자 4백40만명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폐암을 8개 암의 발생률을 조사한 이 연구보고는 조사대상 인구가 우리나라인구의 10%를 상회하는 방대한 규모여서 현실과 거의 일치하는 유용한 조사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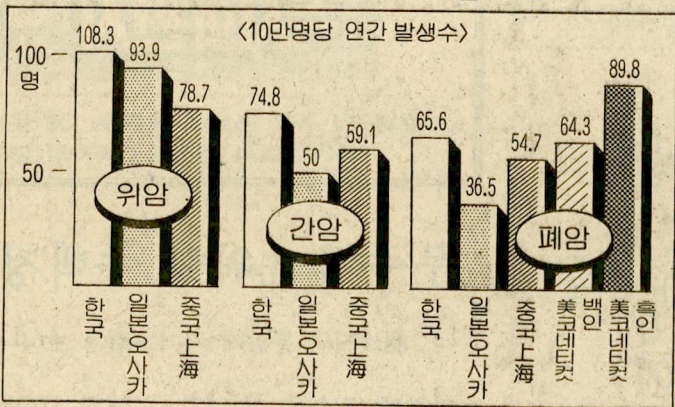
이 조사에서 밝혀진 우리나라 사람들의 암 발생률중 가장 두드러진

위암 10萬명의 百8명

간암 74.8명...폐암 64.3명...
스트레스·식생활·흡연·과음·환경오염·위염

35~64세남자 癌발생률 세계최고

35~64세 성인남자 암발생률 비교



0.36%의 간암발생률이 상대적으로 아주 낮았다.

이 조사에서는 또 우리나라인구 4천3백여만명중 가장 많이 발생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安允玉교수팀의 연구보고(본보5월24일 14면 보도)내용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암발생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것은 성인남자(35~64세)의 위암 간암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이다.

로 밝혀졌다. 그러나 전체인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들 암발생률이 세계최고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는 歐美 일본등과 달리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 보다 암발생률이 10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백혈병중에서는 소아남자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많으며 골수암발생(연간 6백여명)은

정(正)은 일본 중국등 아시아 국가들과는 비슷했으나 歐美 국가보다는 낮았다.

〈尹正國기자〉

이외에 의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성인남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식생활이 불규칙

또 유방암과 자궁암은有病率은 높으나 새환자 발생(매년 1천1백여명씩)으로 추정)이 적은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들 암의 예후가 나쁘지 않아 암에 걸려도 생존율이 높기

의학

